

초등학교때 이민...“외톨이에 폭력적 PC게임 즐겨”

美 버지니아대 총격사건 시간대별 일지

미국 사상 최악의 총격사건으로 기록된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한국계인 조승희(23, 영문학과)라고 미 경찰이 17일 발표했다.



- 시간대별 상황
- 16일 오전 07:15(현지시간) 911 응급 전화로 기숙사에서 총격이 발생. 남녀 한명씩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됨
 - 07:30 부상자 2명 병원 후송, 수사관들 두 사건 관련 단서 추적 시작
 - 08:00 강의 시작. 경찰, 기숙사 소개 후 목격자 청취 시작
 - 08:25 대학 관계자, 피해상황 파악. 학생금지 방안 위해 회의
 - 09:26 대학측, 학생들에게 주의와 신고를 당부하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
 - 09:45 노리스홀서 총격 발생 응급전화가 대학경비부에 걸려옴. 경찰 현장 출입문 부수고 2층 진입. 자살한 범인 발견
 - 09:55 대학측, 건물내 피신 당부하는 2차 메일 발송과 교내 방송 실시
 - 10:16 모든 강의취소와 건물을 잠그고 창문에서 떨어져 있으라는 3차 메일 발송
 - 10:52 희생자 발생과 즉시 있을지 모를 다른 범인을 추적중이라고 4차 메일 발송
 - 12:15 대학측 기자회견 갖고 피해규모 발표. 희생자수, 범인 포함 33명 확인됨
 - 17일 오전 대학총장, 범인이 아시아계 남학생이라고 발표
 - 미 경찰, 범인이 한국계인 조승희(남 23, 영문학과 학생) 이라고 발표

범인 조승희는 누구?

버지니아공대 학살의 범인으로 밝혀진 한국 교포학생 조승희(23·영문학과 전공)씨는 누구이며,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조씨는 초등학교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버지니아공대에서 영문학과 4학년에서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용의자인 한국계 조승희씨는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며 “조씨는 버지니아 공대 하퍼 홀 기숙사에서 지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인터넷은 조씨의 부모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센

터빌에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DC의 인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7일 “조씨는 1984년 1월 18일생으로 한국계 영주권자이며, 초등학교 때인 1992년(8세)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가고 이후 계속 미국에서 거주해왔다”며 “조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주권자는 “그린카드”라고 불리는 영주권을 갖고 미국에 거주할 수 있지만 ‘외국인 거주자’(a resident alien)이기 때문에 국적은 한국

인이다.

이 당국자는 조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 “미국 수사당국의 발표 이외에 파악된 게 없다”면서 “처음의 사건과 2시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의 범인이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확신을 못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씨의 정신병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조씨에 대한 정확한 신상과 정보, 범행동기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까지 버지니아공대 학교 당국이 밝힌 내용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그는 어릴 때 미국으로 옮겨온 영주권자로 ‘외톨이’ 같은 고립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폭스뉴스는 안경을 쓴 짧은 머리의 범인 사진을 방송하며, 조군이 16일

기숙사에서 2명을 살해하는 1차 범행을 저지른 뒤 어지러운 심경을 나타내는 메모를 남겼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군이 미국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학교 내 하퍼 기숙사에서 생활해온 미국 영주권자라고 발표했다.

래리 핑커 대학 대변인은 “그는 ‘외톨이(loner)’였으며,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조군의 주변에 평소 친구나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경찰이 그가 누구인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 대학의 한국 학생들도 이구동성

으로 “그는 한국 학생들의 모임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말해 상당히 고립된 생활을 해왔음을 시사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목격자들은 조씨가 총격 당시 매우 침착했고, 훈련받은 듯 매우 능숙하게 총기를 다뤘다고 증언함에 따라 그가 평소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을 즐겼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AP통신은 익명의 경찰관을 인용, 조씨가 지난 3월에 구매한 9밀리 권총 영수증을 배낭 속에 지니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혹스런 외교부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의 범인이 한국 교포학생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17일 밤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당국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교민사회 경악·총격·긴장 인종차별·보복테러 우려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의 범인이 17일 한인 교포 학생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인사회가 깊은 충격과 근심에 빠졌다.

재미교포들은 모두 일손을 놓은 채 착잡한 표정으로 TV 발표를 지켜 본 뒤 이번 사건이 가져올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재미 교포들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한편으로 미국 주류사회에서 한국인 커뮤니티 전반에 대해 그릇된 이미지가 심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 한인회를 비롯한 재미 교포 단체들은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번 사건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영근 세계한인회 공동회장(전 워싱턴 한인회장)은 “혹시나 한국인이 범인일까 우려했는데 한인 교포가 범인으로 드러나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가 한인 공동체 전반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갖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인회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 이번 사건에 대한 한인 교포 사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대학생 등 청소년 자녀를 둔 재미 교포들은 이번 사건으로 자녀들에 대한 일부 보복을 우려하면서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버지니아공대에 재학중인 한인 2세인 새뮤얼 김(20)은 “이번 사건 이후 주변에서 한국인 학생들을 경원시하거나 위협하는 움직임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국 유학생은 “뤄라고 할 말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대학의 한인학생회는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한국 학생의 안전을 위한 모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사건 직후 비상 대책반을 구성했다.

현재 미국에 사는 교민은 2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유학생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만3728명을 기록, 세계 1위 규모다. 사건이 발생한 버지니아 공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중 한국 유학생과 교민 학생 숫자도 1천명을 웃돈다.

/연합뉴스

부시 “충격과 슬픔에 빠져”

美 언론 ‘학살’로 표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포함, 미국 전역이 16일 오전 버지니아주(州) 블랙스버그 버지니아 공대(버지니아텍)에서 최소 사망 32명 등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버지니아텍 학살(Virginia Tech Massacre)’이라고 까지 표현하는 등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 정규편성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이번 사건을 긴급기

사로 다뤘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버지니아 공대 총기참사와 관련, 성명을 통해 “미국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사건 현장인 버지니아 블랙스버그 소재 버지니아텍을 방문, 조의를 표명키로 했다.

미국 상·하 양원도 최약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번 총기 난사사건을 “정말 끔찍한 비극”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Haenam Uhangri Dinosaur Museum

천연기념물 제394호 개관당일 무료 관람

4월 27일 개관

국내 최대 공룡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땅끝해남 우항리 공룡박물관 개관

일시: 2007. 4. 27(10:30) | 장소: 우항리공룡화석지 일원

구분	일시	구분	일시	특별행사
기념행사	2007. 4. 27(10:30)	체험행사	2007. 4. 27~4. 29	KBS 개그맨 박준형, 정종철의 전국미백이대회 2007. 5. 6(14:00)
국제학술심포지움	2007. 4. 27(14:00)	전시행사	2007. 4. 27~5. 20	
축하행사	2007. 4. 30(19:00)	부대행사	2007. 5. 5~5. 20	

주최: 해남군 | 주관: 공룡박물관개관추진위원회 | 문의: 해남군청 문화관광과(530-5324)